

##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1)

###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김지덕 (본협회 국제위원)

제21차 이사회 / 오근석 (본협회 국제위원)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 / 이정근 (본협회 국제위원장)

###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금년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Malaysia Kuala Lumpur에서 2000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16개 ARCASIA 회원국 중 몽고를 제외한 15개국에서 각 건축사협회 회장, 국제관련 건축사, Student Jamboree 관련 건축과 학생 그리고 말레이시아 개업 건축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성대히 개최되었다.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주관으로 거행된 금년 회의에는

- 1) 명예임원 회의(Fellowship Meeting)
  - 2) 국제기구 회의(UIA 4지구 회의, CAA 회의)
  - 3) ARCASIA 임원회(Office Bearers Meeting)
  - 4) ARCASIA 이사회(Council Meeting)
  - 5) ARCASIA 교육위원회(ACAE)
  - 6) Student Jamboree
  - 7) ACA-9 Session 개막식
  - 8) ACA-9 Session
  - 9) ACA-9 우정의 밤 행사
  - 10)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창립 80주년 행사
  - 11) ACA-9 폐막식
  - 12) 건축물 견학행사 등
-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됐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의구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이사, 이근창 부위원장 등 각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 및 각종 행사·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각 나라의 현재 처한 자국의 건축사 위치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나라의 문제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많은 정보를 얻어 귀국하였다.

각 국가별 「건축 설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 건축사를 대표하여 이필훈 위원의 연구 발표도 많은 찬사를 받았고, Key Note Speaker로 초청된 류춘수 회원의 건축 철학에 관한 초청강연도 좋은 반응으로 참가한 모든 건축사들로부터 칭송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Michael Hopkins, Malaysia의 Cecilia Oh, 홍콩의 Rocco Yim,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 일본의 Tetsuo Furuich, 호주의 Gabriel Pool 등의 작품도 소개되어 찬사를 받았다. 환경 설계에 대한 각국의 건축사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고, 21세기 건축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국 건축사 대표들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WTO 서비스 무역협정 구체적 약속과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등에 관해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각국 대표들이 많은 양허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경청하였다.

학생들을 인솔하였던 김홍일 위원의 노고가 특히 컸다. 학생 Jamboree 행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카시아회원국 학생대표들과의 대화에서 ASIA 국가간 건축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왔으며, 더욱이 좋았던 것은 아카시아 각국의 동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 이인호 국제위원, 조성중 한국건축가협회 국제위원장 등이 교육위원회 Workshop에 참가하여 건축학 교육의 Studio 교육 방식, ARCASIA 건축대학교 문제, CODHASIA (Conference of Deans &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on Asia)의 새로운 제안, 학교의 새로운 program의 제안 등 구체적 논의를 제안 받아 계속 연구하기로 하는 등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들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항상 국제회의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건축사 활동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나라들처럼 건축사가 제구실을 하는 제도적·법적·행정적 뒷받침이 될 것인가가 부러워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많은 건축사들이 참가해서 좋은 경험들을 익히고, 또 체험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발전상에 건축을 전공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탄식하며 이 참관기를 썼다. 세계는 이제 자국의 건축사가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모두가 초광속으로 변해가는 시점에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필자로서 우리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참관기를 썼다. 아울러 이런 행사에 앞으로 더 많은 건축사들의 참관을 바라는 바이다. (김지덕 / 본협회 국제위원)

## 제21차 이사회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는 2000. 9. 3일부터 9.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작년 서울에서 아시아 건축사 포럼을 개최한 우리로서는 지난 대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대한건축가협회(KIA)가 ad hoc body 단체로 UIA에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도움을 받은지라 금번 대회에서 많은 할 일이 있었다.

회장님을 비롯한 국제위원장, 국제위원들을 각각 9월 3일과 4일을 전후해서 서울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다. 우리일행은 말레이지아 항공의 지연출발로 인하여 이사회 당일인 9월5일 새벽 3시에 쿠알라룸푸르 샹그리라 호텔에 도착하였다

### 2000년 9월 5일

아카시아 이사회는 Congress 시작전 이틀 동안 정례적으로 열린다. 이들간의 이사회와 이들간의 congress를 갖고 하루는 현지 건축기행(Architectural

tour)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같은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Jamboree대회를 갖고 있다.

이사회 회의는 9시부터 시작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총 16개국 중에 몽고 대표단이 불참하여 15개국이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우선 아카시아 회장인 P. Kasi 의장의 인사말과 그동안 ACA-9를 준비한 임원들의 인사가 있었다. 또 UIA 회장인 스쿠타스 회장의 축전이 FAX로 날아와 대독되어졌다. UIA 회장인 스쿠타스 회장이 지난해 서울 포름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우리협회가 UI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였다. 이어 영연방 회원국 (CAA)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남아 몇 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 회원국(CAA)은 아카시아 대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시작직전에 필리핀 건축사(UAP)협회 회원이고 ARCASIA 창립 멤버였던 고 멘도시회장에 대한 묵념도 가졌다. 비록 얼마전에 작고하였지만 아카시아 대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많은 후원과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던 분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본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서울 포름 회의록 정리와 ACAE meeting 관련 회의는 바로 옆 회의실에서 금일 오후부터 개최될 것이며, 의제로는 각국에서 건축과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환 학생으로 서로 초청하여 건축학문의 상호교류를 갖자는 의견의 제시되었다.

이사회는 KIRA가 UIA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우리 협회 회장님은 즉석에서 그동안 KIRA가 UIA에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준 P. CASI 회장과 아카시아 회원국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아카시아 건축 작품상 시상과 관련하여 해당 작품을 List-up을 하였고, Architect Award 보고 내용

이 있었다. 금번에는 우리 나라 김석철 회원께서 수상자로 결정되어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아카시아 회계 보고와 각국별로 회비 각출내용 보고도 있었으며 몇 회원국은 회비 감면 결정도 있었다. 오후 이사회에서는 School of Architecture를 연구해온 태국 건축사협회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보고 내용 중에는 각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태국 우수 건축대학에서 수학하여 아시아 건축가로 키워본다는 것이었으나 기금문제, 회비 각출문제, 위험부담 자격인증 문제, 학위 인증문제등 제반 문제가 야기되어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인도 건축사 협회(IIA)와 태국 건축사협회(ASA)가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현역 건축사의 직위관련, 설계 용역비의 합리적 산정, 설계 Service업의 용역범위 및 건축사 직업윤리 등 다수의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ARCASIA 건축상에서는 3년간 (주) 한샘에서 Sponsor를 맡아 매년 미화 \$20,000을 아카시아 건축상 기금으로 후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아카시아 회장직 임기와 관련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후 1년간은 임시 회장으로 현 회장과 같이 실무실습을 거친 후에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회비 관련 보고에서 차후 아카시아 대회가 열리는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회비를 관리해야 하는가를 토의하였으나 국가별로 외환 관리법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첫날 이사회는 오후 6시쯤 마치고 저녁 Welcome Party가 Main Hall에서 있었다. 말레이시아 전통 무용 공연과 ARCASIA 회장의 인사말과 대회 집행위원장이 각국 대표단에게 정중한 환영 인사가 있었다. 식사와 함께 각국 대표들은 담소하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제21차 이사회 광경(우리협회 이의구 회장은 KIRA의 UIA가입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아카시아 회원국대표들에게 감사연설과 함께 상호협력을 다짐하였다.

## 2000년 9월 6일

이사회 둘째날, 아침 9시 반경에 각국 대표들이 이사회장에 도착하여 회의는 계속되어졌다. 금번에는 아프리카지역 건축사 연맹(African union of Architect) 전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건축활동 소개와 건축발전상을 이야기했으며 아카시아 활동에 많은 찬사를 보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26개 건축대학이 있으며 건축의 미래 동향과 지역적 문화교류 및 건축 정보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홍콩 건축사 협회(HKIA)회원인 Arch. R. Poon의 전날 Fellowship meeting 내용 보고가 있었는데 많은 Fellowship Member로서 짧은 시간에 회의를 마쳐야만 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사회에서는 각국 건축사 협회 E-mail 주소 확인 및 각국 Delegate들의 E-mail 주소록을 작성하여 회원 소식을 즉시 알려주도록 하였다. 금번 대회를 통하여 아카시아 회원국의 E-mail on Line화가 열렸다고 생각되었다.

아카시아 각 회원국은 ARCASIA Magazine을 위하여 좋은 건축물들의 자료제공과 정보제공을 당부하였으며 보다 발전된 잡지를 만들도록 분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어 아카시아 Web Site 소개와 싱가포르 건축사 협회(SIA)의 제 11차 아카시아 포럼(2001년) 준비상황을 소개하는 Slide show가 있었다. SIA에서는 금번 ACA9 대회를 사전 답사코저 많은 실무진을 파견하고 있었다. PAM에서는 University of Technology MARA에서 개최되는 Student Jamboree 참여중인 각국 학생들의 근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아카시아 전 회장이었던 Arch. Esa Mohamed 氏의 UIA 현장에 따른 국제 건축가 연맹의 건축실무 회의 소개도 있었다.

이어서 각국별로 Country Report 보고가 있었다. 인도 건축사 협회(IIA)에서는 극빈자를 위한 Housing 국제회의 개최가 금년 11월 17~18일 뭄바이에서 있다고 보고했다. 필리핀 건축사협회(UAP)에서는 Millenium 행사로 건축학술 발표회 소개가 있었으며, KIRA 대표단에서도 IMF를 극복하고 경제 상황의 점차 나아짐에 따라 현대건축 활동 소개와 금년 11월에 건축환경 포럼이 서울의 ASEM 회의장에서 개최된다는 소개도 잊지 않았다. 오후 Session 에서는 차기 아카시아 대회 개최지를 주최국 별로 확인하여 알렸으며, 그를 알아보면 오는 2001년에는 싱가포르(SIA)에서 포럼을, 2002년에는 인도(IIA)에서 아카시아 대회를 Student Jamboree와 함께 열

고, 2003년에 Bangladesh(IAB)에서 포럼 개최를, 2004년에 마카오(AAM)에서 아카시아 대회 및 잼보리 대회를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4년 ACA대회에서는 마카오 내에 건축대학이 없는 이유에서 학생 잼보리대회는 홍콩협회(HKIA)에서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절충하여 결정하였다. 이어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 11월에 건축 환경 포럼 개최에 대한 소개로 Power Point Presentation 시사회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환경운동가, 아카시아 회원국 Member등 유명한 Specaker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많은 아카시아 회원들이 참여 해 주길 당부하였다. 이어 아카시아 이사회 임원 선출이 있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Zone-C 지역 부회장 자리에 그 동안 일본 건축사 협회(JIA)의 Prof. 호즈미氏가 맡아왔는데 금년 임기만료로 신임 Zone-C지역 부회장 선출이 있었다. 곧 부회장 선출 호명에서 대한 건축사 협회(KIRA)국제 부위원장인 이근창 위원이 호명되어 만장일치로 Zone-C지역 부회장에 피선되었다.

임원선출을 마치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가 있었다. 이어서 아카시아 교육 위원회에서 그 동안 회의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회가 Prof. Dato씨에게서 있었다. (교육 위원회 보고서 참조)

교육위원회 보고회를 마치고 끝으로 차기 아카시아 회장 선출이 있었다. 처음에 호명자로는 필리핀 건축사협회(UAP) 전 회장이었던 Arch. 올란다, 홍콩 건축사협회(HKIA) 회장인 Arch. Barry WILL, 파키스탄 건축사협회(IAP) 대표인 Arch. Zaigham Jaffery씨 등이 입후보로 등록을 하였다. 등록 후보가 너무 많아 이사회에서는 일단 세 후보를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하고 선출 방법을 논의한 결과 표결로 하는것에 동의하였다.

1차 표결 개표중 필리핀 대표 후보인 Arch. 올란다씨가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2차 투표에서 Hong Kong 대표인 Arch. Barry Will씨가 7표를 득표했고, 파키스탄 대표인 Arch. Jaffery씨가 8표를 득하여 차기회장에 Arch. Zaigham Jaffery씨가 당선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이사회를 마치고 저녁에는 Student Jamboree 가 열리는 UiTM대회장으로 이동하였다. 약 1시간을 버스로 Highway를 달려 말레이시아 종합기술대학 건축대학에 도착하였다. 많은 외국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안내를 받아 대회장에 들어서니 학생들과 현지 건축과 교수들로 만원이었다.

개회식을 알리는 팽파레가 울리고 이어 卍

지사의 인사말씀과 아카시아 회장 인사가 있었고 이어 앉은 자리에서 각국별로 대표단 소개가 있었다. 여러 나라 건축사들과 건축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 앉아 식사와 담소로 저녁시간을 갖었다. 말레이시아의 건축대학 교습방법 중 특이한 것은 건축대학의 학과과정에 음악과 악기 다루는 과목이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었다. 건축과 음악은 한 장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건축과 학생들로 구성된 악기 연주회가 있었고 독창 및 합창으로 대회장 분위기는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었다. 젊은 건축학도들의 무대의 장에서 미래의 아시아 건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참가에 앉아 지난 이틀간의 아카시아 이사회를 돌이켜 보니 각 나라 대표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는 모습이며,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본인의 회생을 내세우려 하지않는 진정한 건축가의 혼이 배어나오는 것을 볼 때 아시아의 건축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이번 대회에 참석중인 모든 건축사 여러분께 찬사를 보낸다. (오근석 / 본협회 국제위원)

## 제 5회 아카시아 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시아건축사협회의 주요 공식행사중의 하나이다. 우리 협회는 1999년 9월 제 20차 아카시아 이사회와 제 10회 아카시아 포럼을 서울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이사회는 해마다 열리고 포럼은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열리게 된다. 아카시아 건축상의 절치는 작품의 접수와 심사를 포럼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시상식은 이듬해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거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아카시아 회장으로 부터 1999-2000 아카시아 건축상 주관자로 지명되어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1999년 9월 1일까지 16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으로부터 총 71개작품이 접수하였고 9월 11일에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은 P. Kasi(아카시아 회장), 이 정근(건축상 주관자), 임 권택(영화감독), Syed Zaigham Jaffery(건축사, 파키스탄), Nobuo Hozumi(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교수), Jean-Francois Blassel(건축사, 불란서) 등 6명이었다. 심사를 진행한 8개 부문 중에서 위락시설과 특수건축물 부문에서

는 수상자를 내지 못하였다. 대신 단독주택 부문, 공공문화 시설과 보존건축 부문에서는 금상 외에 장려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예년에는 부문별 금상만 주어졌었지만 낙선시기에는 너무 아쉬운 작품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개의 작품에 장려상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금상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리랑카, 한국의 건축사들의 몫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김석철 회원이 제주 영화박물관을 출품하여 공공문화시설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였고, 청년건축사 민규암 회원이 단독주택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개인의 영광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다졌다.

특히 아카시아 건축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더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상품 종합메이커인 (주)한샘이 이번 건축상 행사를 후원하였고, 앞으로도 추가로 제 7회 아카시아 건축상까지 후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주)한샘 측에서 후원을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협의를 통해 후원관계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의 회사가 아시아 건축행사를 공식 후원한다는 것은 국제 건축계에 한국의 공헌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건축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국제 사회에 활동영역을 넓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국제 건축계에 연을 맺는 것을 계기로 우리의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키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 싶다.

작년에는 아카시아 행사기간 동안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71개의 출품작들을 COEX 전시실에서 전시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4일에서 2000년 1월 3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갤러리에서 별도로 특별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건축사'지 1999년 10월호에는 입상작 10개의 작품을 특별히 게재하여 한국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금년에는 9월 7일부터 9일에 걸쳐서 제 9회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 행사 마지막날인 9일 폐회식에서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금메달과 상장을 준비하였고 10개의 수상작 패널을 쿠알라룸푸르에 수송하여 대회장에 마련된 전시실에 전시하도록 하였다. 수상작품과 수장작품들이 제출한 자료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아카시아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토록 하였다. 수상식에서는 제 5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경과를 본인과 Zaigham Jaffery 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상에 들어가서는 각 수

상자가 등단할 때마다 그의 약력을 알리고 수상작의 슬라이드를 무대 화면에 비추어서 청중들이 수상작에 대한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팔자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작성한 각 작품의 심사평을 낭독하였다.

심사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상작 자료는 건축사 1999. 10월호 참조)

### A-1(단독주택)

이 부문에는 15개의 출품작이 있었다. 태국의 프라퓏 왕은 4개의 공간군이 인공호수 주변에 만달라의 구성으로 대치되는 공간조직의 극적인 연출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민규암씨는 한국의 전통주거형식에 내재하는 공간조직의 문법을 현대주택에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업 산품들이 창의성있게 쓰여지고 주택공간의 구법이 예리하게 재해석되었다. 반면 일본의 건축사 구보씨는 대지의 거시질서에 호응하는 미시세계를 창조하였다. 그의 주택의 모든 요소들은 빠짐없이 우주론적 질서의 관계망속에 짜여지고 있다. 접근로의 방향, 바다를 향한 시선축, 하늘을 향한 상징축, 내부와 외부에 걸친 광선의 유희, 인접한 오렌지밭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설정 등등. 공간을 구성하는 형상들의 기하학적 조합과 병행하여 재료의 질감들이 섬세하게 선택되었다.

### B-1(상업건물)

홍콩에 지어진 빙 관씨의 타워는 어떻게 도심의 작은 대지에 세장한 높은 건물이 복잡한 도시지역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고도의 효율성을 가지는 써비스면적과 거주면적의 구성은 건물의 요체이다.

### B-3(공공건물)

일본의 건축사 아키라 큐류씨는 아마쿠니 시민홀을 설계함에 있어 소도시의 교통망과 기존 건물의 스케일에 조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인접한 자연의 요소인 산자락과 맞닿은 시가지사이에 위치한 대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기능들은 작은 체적으로 나누어서 분리되고 이들은 다시 커다란 그러나 투명한 유리 박스에 의해 통합된다. 인공 연못은 기존 도시의 건물군과 시민 홀을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며 옛길은 그대로 살려서 새 홀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하였다.

한국의 김석철의 제주 영화박물관은 제주도 용암의 퇴적물처럼 보인다. 마치 섬의 지질학적인 처녀성을

그대로 간직한 듯 하다. 이 박물관은 건축 구조물보다는 이 섬의 용솟음 친 지표의 일 부분으로 느껴진다. 내부공간들의 유기적인 구성은 동굴의 미로를 연상케 한다. 이 건물은 마치 자연과 문명의 경계에 놓인 거석물 같이 사람에게 다가온다. 의도 했던 아니건간에 이 건물은 인간의 건축행위에 깊이 스며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건축행위에 내재하는 자연과 인공의 관계이다.

### C(산업 건축)

스리랑카의 조이사는 그녀가 설계한 BMW 복합건물에서 하이텍이라는 세계적인 경향과 이에 대한 지역적인 수용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 그녀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이 두 개의 주제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다.

### D(보존 건축)

싱가폴의 리차드 호씨는 전통도시주택을 개축하는데 있어 거리에 면하는 풍부한 전면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신에 내부의 생활공간은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그는 내부도 온통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옛 냄새가 배인 창과 마루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 도입된 부분과의 조화를 꾀한다. 새것과 옛것은 연속성의 공통분모 속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

파키스탄의 파베즈 라티프는 식민시기 양식과 술탄의 양식이 혼합된 19세기 유적을 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 장교 크럼의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 현대의 건축산업의 조건에 호응해서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구조 시스템과 재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1999-2000 아카시아 건축상 주관자) ㉠

(한국측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ARCASIA FORUM10 조직위원회 여러분과,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관계자들, 대한건축사회 국제위원들, 그리고 사무처 관계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